논단 3

건설업의 ESG 대응 방안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Construction Policy

포스코건설 사례를 통한 건설업의 ESG 대응방안

박철호 포스코건설 기업시민사무국장
(75son@poscoenc.com)

Ⅰ. 서론
Ⅱ. 포스코건설 ESG 전략
Ⅲ. 포스코건설 ESG 추진체계
Ⅳ. 향후 추진방향

1

Ⅰ. 서론

코로나로 인한 팬더믹, 기후위기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우리를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MZ세대로 대변되는 고객층은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제품 소비를 원하고 있고, 정부는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 정책 발표에 이어 지난해 말 '탄소중립 2050'을 발표했으며, 투자기관은 ESG를 투자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 분석에 따르면 '20년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지속가능 투자자산 규모는 '16년 대비 54% 증가한 약 35조 달러에 이르고, Deutsche Bank는 '30년 까지 글로벌 ESG 투자액이 10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부합하는 경영활동을 촉구하는 등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적인 요소 위주로 판단했다면 비재무적인 요소인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가 기업 경영의 키워드로 인식되고 있고, ESG는 더 이상 '비재무'가 아닌 기업가치에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와 ESG 라는 물결의 중심에는 기업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일찍이 포스코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18년 선제적으로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선포하고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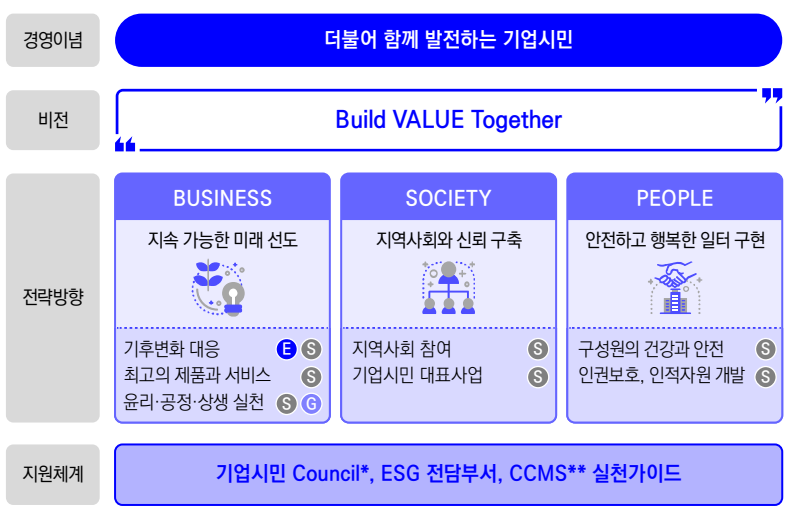
회공동체의 일원으로 경제적 이윤 창출을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포스코건설의 ESG 전략과 추진체계를 통해서 건설업의 ESG 대응방안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Ⅱ. 포스코건설 ESG 전략

포스코건설은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같이 짓는 가치(Build Value Together)'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사 와의 공생가치 창출 및 환경을 고려한 비즈니스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 선도, 지역사회와 신뢰 구축,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구현'을 전략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ESG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사장 이하 全 임원과 3개 분야(환경, 지배구조, 건설산업)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업시민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UNGC, CDP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SASB, TCFD 등 글로벌 공시기준에 따라 관련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림 1 포스코건설 ESG 전략체계도



*기업시민 Council : 분기 1회 기업시민(ESG)을 주제로 임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체
**CCMS(Corporate Citizenship Management Standards) : 업무와 일상 영역에서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

Ⅲ. 포스코건설 ESG 추진체계

1. 환경 (Environmental)

(1) 기후변화 대응

전 세계적으로 폭염, 대형산불, 코로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과 탄소국경세 도입,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이행 법제화, 금융기관의 ESG 투자 확대, 고객과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관심증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기후변화 대응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국내 탄소배출량(7억톤, '19년)의 22%를 건설부문이 유발하고 있어 건설산업의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은 필수적인 생존전략이 되었다. 탄소배출량은 배출원에 따라 구분되는데 주로 시공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량인 Scope 1,2가 약 3% 수준인데 반해, 자재의 제작, 운송, 준공 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Scope 3가 약 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Global Alliance for Buildings and Construction)

포스코건설은 '20년 건설업 부문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21년에는 자체적으로 '2050 Carbon Negative' 전략 및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이행하고 있다.

① 2050 Carbon Negative 전략 수립과 실행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배출권 확보, 포트폴리오 및 Supply Chain 변화를 통한 건설산업 생태계의 탄소중립 달성 기여를 목표로 '30년 30% 감축, '40년 60% 감축을 거쳐 '50년 Carbon Negative 달성을 위한 전략과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기후행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통해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경영전략에 반영하는 협의체인 P-GRT (POSCO E&C Green Round Table)를 운영 중이다. 활동결과는 임직원과 협력사 전파교육, 그룹사 사례소개, 대외 홍보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공유를 통해 공감대

확산과 실질적 성과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② 저탄소 포트폴리오로의 전환

신기후 체제에서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1.5℃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저탄소 비즈니스 전환으로 위기를 기회화 하고자 한다.

'13년 송도에 친환경 에너지 저감형 건축물인 '포스코 그린빌딩'을 건립한 데 이어,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가 국내 최초로 비주거시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것을 토대로 저탄소 친환경 건축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고, 포스코그룹이 추진하는 수소 500만톤 생산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정부의 친환경 정책 확대에 발맞춰 수소 인프라와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5월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 기업인 오스테드(Orsted)와 해상풍력 및 그린수소 사업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③ 미세먼지와 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미세먼지와 소음을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무인살수기'와 '음파를 이용한 실외공간 미세먼지 유입차단 기술'로 각각 국회의장상과 국회환경노동위원장상을 수상하였고, 국내 최초로 소음예측 Quick-시뮬레이터를 자체 개발하여 기존 2개월이 소요되던 소음피해 예측을 3일 내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④ 친환경 근무복

버려지는 폐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제작한 친환경 근무복을 직원들이 직접 착용할 예정인데, 폐 페트병 소각시 배출되는 탄소 4.5톤도 줄이고, 자원 순환체계에 대한 임직원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투명 페트병 모으기' 행사도 진행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저감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2) 생물다양성 보존과 환경보전

기후변화 다음으로 중요하게 떠오르는 이슈는 생물다양성 보존과 환경보전이다. 포스코건설은 프로젝트 착공 전 사업장 인근 생물 개체를 파악하고

보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있다. 특히, 도심지에서 영역동물인 동네 고양이의 울음소리, 배설물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15개소의 '동네고양이 급식소' 설치사업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지향에 작은 보탬이 되고 있다. 또한, 동물자유연대 및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시공현장 인근의 부실하고 열악한 유기견 돌봄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하며 친근감 있는 시설로 개조하는 활동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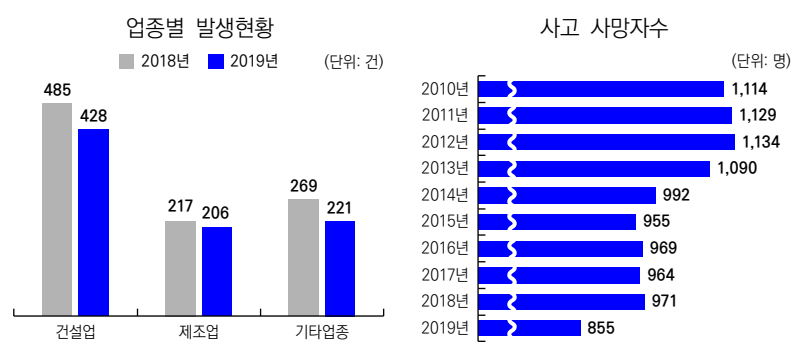
아울러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오염 예방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인 '사랑 海, 바다 SEA'를 펼치고 인천, 삼척, 울산, 새만금 등 전국 4개 해안을 대상으로 환경정화활동을 펼치는 '클린오션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2. 사회 (Social)

(1) 안전한 사업장

건설산업에서의 '안전'은 근로자의 인권과 직결되고, 건설업은 타 업종 대비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높으며,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법적 규제와 사회적 인식변화로 인해 안전사고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그림 2 산업재해 업종별 발생현황 및 사고 사망자수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건설업조사

포스코건설은 이러한 안전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중대재해 Zero달성을 목표로 사물인터넷(IoT)기반의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건설현장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Smart Safety

Solution'을 구축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는, 비대면 출입관리, 스마트 영상장비, 호이스트/개구부 안전, 화재/질식 안전관리 등 다양한 요소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에서의 활용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0 스마트 건설 기술·안전대전'에서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임직원,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누구나 익명으로 불안전한 상태를 신고하고,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상황에 대해 즉시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요공종 대상 협력사들의 안전진단 및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협력사 자율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안전경영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2) 지속가능한 공급망

건설업은 수주산업 특성상 정확한 물량 예측이 힘들고, 연간 공사물량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장비나 인력의 상시 고용이 어려워 전문건설업과의 원활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완성공사 원가요소별 구성추이를 보더라도 '19년 기준 협력사로 부터의 조달비율이 82.71%에 달한다. (외주비 58.44%, 재료비 24.27%)

특히, 건설업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인 철근, 시멘트 등은 제조, 시공, 운영 全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는 시공사뿐 아니라 공급사, 운송사 등 관련회사들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포스코건설은 ESG가 공급망에도 정착될 수 있는 구매체계를 수립하였다. 협력사의 등록, 평가, 입찰과정에서 가격, 품질, 납기 준수 뿐만 아니라 안전, 환경, 비즈니스 윤리와 같은 ESG 요소를 반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업계 최초로 '이크레더블'과 공동으로 '협력사 ESG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21년 하반기부터 협력사 등록과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공정, 공존, 공감, 공유, 공생의 '동반성장 5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협력사 ESG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등 녹색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고,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협력사에 대해 등록시 가점을 부여하며, 입찰 시에도 각종 우대방안을 적용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친화기업에 대한 구매도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1 녹색제품(저탄소/친환경 자재) 구매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녹색제품 구매금액	1,000	2,700	3,000	3,200	3,500

(3) 지역사회 나눔동행

책임있는 기업시민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배려와 공존을 이행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20년에는 'WITH [Worth(가치있는), Impact(임팩트 있는), Touching(감동이 있는), Harmony(이웃·자연이 조화로운)]'를 목표로 건설업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13년 부터 소방청과 협업하여 화재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20년에는 전국 8개 현장과 8개 소방서가 참여하여 화재에 취약한 120가구를 대상으로 연기 및 열 감지기, 분말소화기 등 화재안심키트를 설치하고, 낡은 배전반과 전선을 교체하였다.

그리고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Eco-Dream' 사업은 지역사회 노후시설 31개소에 대한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소외계층 지원과 환경문제 해결이 동시에 가능한 사업이다.

또한, 해외 개발도상국 청년들의 자립지원과 지역 고용창출을 위해 '18년부터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현장 인근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조적, 미장, 목공 등 초급 기능공 직업훈련소를 운영하고 있다. '20년에는 코로나19 여건에 맞추어 개발한 건설기능인력 앱을 통해 방글라데시 마타바리 지역 청년 160명이 양성교육에 참여하여 그 중 우수 수료자 67명을 당사 발전소 현장에 채용하는 등 '20년 까지 295명을 양성하였고, '23년 까지는 총 895명의 청년 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속 추진하고 있다.

3. 지배구조 (Gover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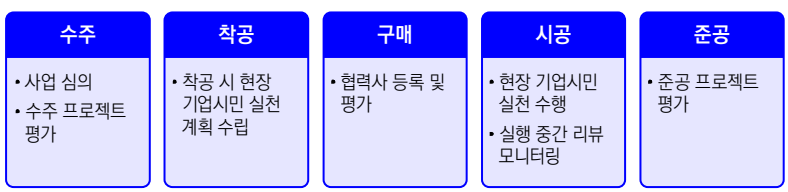
(1) 경영층의 ESG 의사결정 체계

전사 차원에서 기업시민 경영이념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임원, 직책자, 실무자 단위별로 각각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데, 그 중

'임원 카운슬'은 사장 주재로 全 임원이 참여하여 회사의 전략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기후위기 대응과 UN SDGs 달성을 위한 사업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건설사업 발주와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게 사업의 수주검토 단계부터 수행 전반에 걸쳐 ESG 관련사항을 연계 검토하여 경영진의 의사 결정시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고, Project Life Cycle 각 단계별 ESG 측면의 리스크와 기회요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과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의 추진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림 3 Project Life Cycle에 따른 ESG 검토



(2) 그린 파이낸싱 확대

최근 투자자들의 ESG 투자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업들의 ESG 채권 발행 기회도 확대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20년 Sustainalytics의 인증을 받아 국내 건설사 최초로 1.2천억원 규모의 해외 ESG 채권을 발행하였고, '21년에는 한국신용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1.4천억원 규모의 국내 ESG 채권을 발행하여 채권의 투명성 및 투자자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조성된 채권은 중소 협력사 기성 조기지급, 친환경 건축물 인증, 동반성장 펀드조성, 성과공유제, 친환경 교통수단 건설,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등 조성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고 있다. 현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에는 금융기관의 신용평가가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 협력사의 경영여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 공정거래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질서에 부합하기 위해 '03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였다. 이는 법 위반 사전방지를 목적으로 한 교육과 감독 등 회사 내부 준법시스템의 자

율준수 실천을 위한 행동요소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프로그램 이행 결과, 법 위반, 서면실태조사 지적, 신고 건수 감소효과가 있었고, '20년에는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다.

Ⅳ. 향후 추진방향

산업 全분야의 공통된 사항이겠지만, 특히, 건설회사는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해 친환경 포트폴리오 강화와 함께 공급망 전반에 걸친 협력업체와의 협업이 필수이고, 인권 측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산업안전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고객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에 맞게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이는 단일 주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확산되는 형태로 변모할 것이고, 여러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정책방향에 따라 개별기업 단위를 넘어 Value Chain 전체로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포스코건설도 기존 추진 중인 활동을 바탕으로 기업 여건과 사회 트렌드에 맞는 ESG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첫째,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친환경 사업 확대와 함께 제로에너지건물과 에너지 자립률 향상기술 확보를 통한 '2050 Carbon Negative' 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사 관리체계에 ESG 요소를 적극 도입하고, 녹색제품 구매 및 저탄소·친환경 기술개발 투자도 확대하며, 협력사의 안전관리 자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인증제 시행 및 ESG 관련 교육과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진정성 있게 ESG 경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1. The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GSIA (2021)
2. Big data shakes up ESG investing, Deutsche Bank
3. Global Alliance for Buildings and Construction (2019)
4. 국가통계포털 건설업조사, 통계청
5. 완성공사 원가요소별 구성추이, 대한건설협회
6. 2020 포스코건설 기업시민보고서 (2021)